

## 나는 욕망한다

2023년 여름 한국사회는 기록적인 폭염과 더불어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자 10명을 죽이겠다”는 게시물이 3~4일 사이 40건이 넘게 등장했고, 중학생부터 50대까지 약 20명이 검거되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오는 살인 예고는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다. 장갑차가 시내에 등장하고, 경찰들이 지하철에 배치됐다. 안전한 나라로 자부하고 있던 한국사회에서 이런 류의 테러 예고가 ‘땀’이 되어 등장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불특정 여성 일반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감각을 만들어냈다. 교제 살인이나 데이트폭력 비율이 증가하는 것도 한몫하였다. 여성이 잠재적 피해자로 지목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호 『여성문학연구』는 여성의 주체성과 욕망에 좀 더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번 호 『여성문학연구』의 특집은 <여성범죄의 성정치>다. 여성범죄자의 형상은 언제나 공론장의 흥미를 끌었다. 식민지 시기 하층계급 여성들은 남편을 죽인 ‘독부’로 호명되며 스캔들의 대상이 되었다. 마타하리와 같은 여성 스파이, 유혹하는 여성 등의 범죄자 형상은 슬프고 비극적인 사연과 함께 지면에 등장하여 동정을 사기도 하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기 위해 선정적으로 가공되었다. 여성 탐정물이나 형사물 등 역시 인기 있는 대중서사물이다. 누구도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할머니라는 점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미스 마플’과 같은 캐릭터 역시 여성 범죄서사에서 흥미로운 지점이다. 공동체의 정보에 귀가 밝고 호기심이 많은 여성들은 탐정으로 자주 등장한다.

이번 특집에 수록된 두 편의 논문은 고전문학의 원혼 서사와 1990년대 ‘불륜’ 서사를 재독하려고 시도한다. 권도연은 「복수하는 여성 원혼의 서사적 정체성」에서 남자에게 속거나 사랑을 거절당한 여성 원혼의 복수를 통해 여성 주체의 욕망의 문제를 다룬다. 여성이 원혼이 된 후에야 복수를 시도할 수 있고, 그 복수가 상대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무력화시키는 점이었다는 데서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의 욕망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이고, 원혼이 되어서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지탄받는 행위였던 것이다.

이한나의 「1990년대 전경린 소설에 나타난 여성 범죄와 법의 은유」는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을 중심으로, 후경화된 여성 인물들의 내력을 통해 여성 가해자가 섹슈얼리티의 ‘몰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추적한다. 주인공 주변의 여성인물들이 남편 혹은 시아버지를 살해했으며, 이들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몰수’하는 가부장제로 인해 범죄자가 되었다. 같은 시기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 여성 납치범의 서사를 통해 섹슈얼리티와 욕망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1990년대 여성서사는 ‘아버지의 법’에서 금지된 것을 위반하는 욕망을 다루어왔다.

일반 논문은 5편이 수록되었다. 전기화의 「거둬진 상부와 개가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변강쇠가〉와 〈덴동어미화전가〉를 중심으로」는 여성이 남편을 잃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종종 비교되어 온 두 텍스트를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려 시도했다. 이 논문은 공동체 바깥의 인물인 옹녀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덴동어미의 차이를 통해 텍스트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음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경계 밖의 인물인 옹녀는 서사의 주변에 놓이고, 공동체 안 인물인 덴동어미는 자신의 관점에서 입각하여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텍스트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두 작품의 초점화자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누가 목소리를 가진 주체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수진의 「불완전한 주체의 윤리적 말하기-김명순 소설의 근대여성주체를 중심으로」는 주디스 버틀러가 개념화한 취약한 주체의 말걸기를 중심으로 김명순의 소설 「칠면조」, 「돌아다볼 때」, 「탄실이와 주영이」를 다시 읽는다. 타자화를 통해 수동성, 민감성, 반응성을 내비치는 여성 주체들은 타율적 관계성을 조망하고 주체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명순 소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텍스트 분석에 집중한 점이 돋보인다.

김주리의 「1950년대 선정적 멜로드라마의 변주와 탈식민적 판타지-장덕조의 『격랑』에 대하여」는 남성 수난의 멜로드라마적 장치가 당대의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둘러싼 불안과 그에 대한 전망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분석하면

서 1950년대 후반 서구의 원조를 통해 민족국가를 재건하려 한 당대 지식인들의 요구에 상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장덕조의 대중소설 속 ‘파트론 연애’가 사회의 재건과 연결되면서 부르주아 제국의 가면을 벗겨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희의 「1960년대 주부 ‘생활수기’ 봄의 여성문학사적 의의」는 박정희 체제가 여성 국민을 호명하는 역사와 맞물려 이루어진다. 여성은 생활수기를 통해 가난의 고통을 극복하고 타인을 돕는 건전한 서사를 대표재현하고, 이러한 특성이 여성문학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임소연의 「왜곡된 채식주의-페미니즘 이원론에 대항하는 “여성의 육식”-영화 <Raw> 분석을 중심으로」는 ‘육식하는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 <Raw>를 통해 여성의 육식이 지배담론을 전복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바늘」을 비롯한 2000년대 천운영 소설이나 한강 「채식주의자」의 채식주의의 공격성 등 여성과 섭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의 결이 더해지고 있어 반갑다.

이번 호의 추천 석사논문은 유가은의 「허수경 시에 나타난 ‘당신’의 의미와 주체의 형성」이다. 허수경 시 세계에서 ‘당신’이라는 시어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시적 주체의 형성과 연결시켰다. 허수경의 ‘당신’이 의미 변모를 거쳐 후기에 와서 ‘당신’과 결별하고 화해를 이루는 과정을 분석한 이 논문은 하나의 시어를 통해 작품 세계 전반을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꼼꼼한 시 읽기의 사례를 보여준다.

서평으로는 장은애의 「다중의 광장을 위한 모색」이 2022년 출간된 소영현의 『광장과 젠더』(갈무리, 2022)를 읽었다. 소영현이 그동안 설명해온 비평의 의미에 따라 문학과 사회를 대립항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평의 시대적 타당성과 시공간과의 관계성에 주목하는 ‘사회비평’적 측면에서 『광장과 젠더』를 읽은 이 글은 한국전쟁, IMF, 세월호 등 한국사회의 집합감정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온 광장의 복합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중의 광장을 모색하는 소영현의 작업을 따라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연대와 접속의 광장을 상상하게 된다.

『여성문학연구』 59호는 특집 2편과 일반 논문 5편, 추천 석사논문과 서평을 실었다. 섹슈얼리티, 사랑, 식욕 등 여성들의 욕망과 관련한 논문들이 수록되었다. 여성이 욕망하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피고 있는 이들 논문을 통해서 여성들이 쓰고 읽는 세계가 욕망과 맺는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1990~2000년대 이야기했던 다양한 욕망에 대한 논의들을 떠올리는 시간이었다. 이 시기 여성문학사에 대한 재독과 재해석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 더운 여름을 논문 쓰기로 분투해주신 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허운